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배움과 행복

현대인들에게 배우는 이유를 물어보면 아마도 하나같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왜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하느냐고 묻는다면, 그 또한 '돈을 많이 벌어서'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왜 돈이 많아야 한다고 한다면, 대부분 '그러면 행복하니까'라고 대답할 것이다. 결국 배움의 까닭이나 목적이 행복하게 사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행복하게 되는 데는 돈만 많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권력이나 명예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각자가 만족해야 하고, 그마저도 만족에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각자의 생각도 재고해야 하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므로, 사람이 왜 배우는지 그 목표나 방향 설정을 다시 한번 되물어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글은 이재의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소개하는데, 원문은 『도암선생집』 권25, 『잡저』의 「인불가이불학설(人不可以不學說)」이다. 이 글을 읽을 때는 율곡의 『격몽요결』과 관련지어서 비교하면 더욱 흥미가 있고, 또 선생의 호락논쟁에서 낙학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추적하는 것도 재미를 더한다. 자료를 발굴하여 소개한다는 의미에서 원문을 함께 싣는다.

사람이 배워야 하는 이유

율곡 선생의 『격몽요결』의 서문에 보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배우지 않으면 사람이 될 방법이 없다(人生斯世, 非學問, 無以爲人)."라고 하였는데, 이재의 이 글에서도 그 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대저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하늘이 사람을 내어 동물과 구별하게 한 까닭은 사람에게 실제로 사람이 되는 이치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람 되어 동물을 면하게 된 까닭은 사람에게 사람이 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이미 사람이 되는 실제의 이치가 있으므로 마땅히 사람이 되는 실제의 일을 실천한 뒤에야 바야흐로 사람이 되는 이름을 도울 수 있다. 그것 아니면 이름은 사람이나 실제로는 사람이 아니다(夫人者, 萬物之靈也. 天之所以生人而使別於禽獸者, 以其實有爲人之理也. 人之所以爲人而得免於禽獸者, 以其實有爲人之事也. 人旣有所以爲人之實理, 故必行所當爲人之實事而後, 方可以副爲人之名. 不爾則名雖人而實非人)."

이 내용은 성리학의 일반적 진술이다. 사람이 된 까닭은 사람으로서 이치를 갖추었고, 또 그러한 이치에 따라 실천하는 일이 있으므로 사람이 동물과 다르다. 이것은 『맹자』에서 '사람이 금수와 다른 까닭'에 착안한 점과 같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직 사람이 되는 방법을 말하지 않고, 바로 이어지는 글 특히 강조한 부분에 등장한다.

"이른바 배움이란 배움으로써 사람이 되는 것이니, 처음부터 우리 사람의 본분 밖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미 그 사람이 되는 실질을 다할 수 없는 행실에 대해 남이 간혹 자기를 동물에 견주면 발끈하며 성내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동물은 참으로 천하게 여기고 싫어할 만하다. 하지만 내가 아는 일은 추우면 따뜻하게 하고 배고프면 먹고 삶을 좇고 죽음을 피하는 종류이니 동물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다. 나아가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의 큰 도리와 저 사물의 당연한 법칙에 대해서는 동물은 본래 잘할 수 없고 나 또한 능숙할 수는 없으니,

동물은 막히고 사람은 통하며 동물은 치우치고 사람은 온전한 구별이 어찌 있단 말인가? 다만 사람의 둥근 머리나 네모난 발바닥의 형태를 가지고 스스로 사람이라고 말할 뿐이다. 동물로써 동물을 비교하는데 무슨 성냄이 있겠는가? 그 또한 생각하지 않음이 심하다. 하지만 동물을 천하게 여기고 싫어할 만하다고 알고 자기에게 비교하는 일을 부끄러워하는 까닭은 사람이 인의예지의 본성을 갖추고 그것이 발동할 때 측은·수오·사양·시비지심이라는 실마리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그 실마리를 확충할 수 있다면 동물을 면할 뿐만 아니라, 비록 성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 무엇을 꺼리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가?(所謂學者, 所以學爲人也. 初非吾人分外事也. 然人旣不能盡其爲人之實, 而人或比己於禽獸, 則未有不怫然而怒者, 禽獸固可賤惡. 而我之所識寒煖飢飽生死趨避之類, 禽獸亦能之. 至於君臣父子之大倫, 與夫事物當然之則, 則禽獸固不能, 而我亦不能, 烏在其彼塞而此通, 彼偏而此全之別也. 但以圓頭方足之形而自謂之人耳. 以禽獸而比禽獸, 何怒之有. 其亦不思之甚也. 然而知禽獸之可賤惡而羞比於己者, 以其具仁義禮智之性, 發而爲惻隱羞惡恭敬是非之端故也. 苟能擴充其端則不徒得免於禽獸, 雖聖人亦可馴致, 何憚而不爲哉.)"

드디어 사람이 되는 방법을 말하였다. 바로 배움으로써 사람이 된다고 하였다. 배우지 않은 상태의 사람은 동물과 다르지 않다. 사람 모습만 갖추었다고 해서 또는 이론적으로 동물과 다른 천부적 이치를 타고났다고 해서, 곧장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님을 말했다. 하지만 '부끄러워하는' 마음의 실마리를 잡아 사람이 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그것을 확충하여 동물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맹자식 접근이다.

성인 되기에 뜻을 세움

율곡 선생의 학문의 목표는 성인 되기이다. 『격몽요결』의 「입지장」에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이재는 율곡의 학문을 따른다고 자임하였으므로 배움이 성인을 지향하는 일은 당연하다. 이어지는 글을 보면 즉시 확인된다. 강조한 부분을 보라!

"대저 사람이라면 사람이 되는 실질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사람이 학문함에 반드시 성인이 되는 뜻을 세운 뒤에야 진보하는 곳이 있다. 사람이 간혹 원대한 뜻을 스스로 기약하면, 무리가 들고 일어나 비난하고 훼방하며 말하기를, '어리석지 않았으면 미쳤다.'라고 할 것이다. 사람으로서 이미 동물이 되지 않고자 했다면 마땅히 성인과 동류가 되기를 희망해야 한다. 자기기 비록 잘하지 못하더라도 어찌 비방하고 훼방하는 일을 참겠는가?(大抵人而盡爲人之實者, 方是聖. 人之爲學, 必先以聖爲志, 而後方有進步處. 而人或有自期之遠, 則羣起而非毁之曰, 非愚則狂. 人而旣不欲爲禽獸則當爲希聖之徒。己雖不能。何忍非毁之也.)"

이 글을 보면 '사람이 되는 실질'을 다하면 성인이라고 했는데, 이는 다름이 아닌 성인과 보통 사람의 본성이 같기 때문이다. 성인과 보통 사람의 본성이 같다는 말은 율곡이 맹자의 말을 인용한 "사람은 모두 요순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며, 낙학(洛學)이 근거하는 논거이기도 하다. 성품이 누구나 똑같아서 성인이 될 수 있는 근거이다.

생활 속 실천을 통한 배움

이재의 배움의 방법 또한 율곡의 그것을 따랐다. 『격몽요결』에서 "이른바 학문이란 이상하고 별다른 무엇이 아니다. 다만 부모가 되어서는 마땅히 사랑하고, 자식이 되어서는 마땅히 효도하고 ……"에서 보이는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인륜을 실천하는 데서 배운다. 이는 이론적 지식에만 천착하지 않는 유학의 학문관이기도 하다. 강조한 부분에 잘 드러나 있다.

“대저 세상에서 자포자기하는 사람은 본래 기질의 강약이 같지 않아도 그 귀결점을 요약하면 모두 유행하는 풍속이 해친 것이다. 유행하는 풍속의 최악은 우리의 학문을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저들은 성인의 도리의 남은 찌꺼기를 얻어 사람으로 여겼으나, 그 큰 것을 말하면 부모와 자식, 임금과 신하, 어른과 아이, 친구, 부부 사이의 도리이고, 작은 것을 말하면 거처와 음식과 활동하고 말하고 침묵하는 일이다. 인륜의 일상생활에서 설령 그 당연한 법칙을 실천할 수 없어도 성인의 이른바 사람이 되는 도리는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다. 저들은 되레 이것을 의지해 사람의 겉모습만 꾸미는데, 만약 성인의 이른바 배움이 없으면 유행하는 풍속 또한 무엇에 기대서 스스로 사람들 속에 서겠는가? 남이 자기를 사람으로 대우해 주기를 바라면서 사람이 되는 도리를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 또한 미혹된 것이다. (夫世之自暴自棄者, 固有氣質強弱之不同, 而要其歸則皆流俗害之也. 流俗最惡, 吾學以爲不足學. 然而彼得聖道糟粕之餘以爲人, 語其大則父子也君臣也長幼也朋友也夫婦也, 語其小則居處也飮食也動靜也語默也. 人倫日用之間, 縱不能行其當然之則, 而聖人所謂爲人之道, 不外乎此. 彼猶藉此而裝點一箇人底貌樣, 苟無聖人所謂學者, 則流俗亦何所恃而自立於人數哉. 欲人之待己以人, 而惡其學爲人之道者, 其亦惑矣.)”

몇 가지 문답

다음은 몇 가지 문답이다. 이는 이재가 자문자답한 내용으로 몇 가지 특수한 사례를 들어 자기주장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배움이 필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질문1 : 선생의 말씀이 비록 이와 같아도 또한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궁벽한 시골의 천한 사람 가운데 일자무식이어도 부모와 자식과 형제 사이에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는 수만 권의 책을 읽어서 유식하다고 말할지라도 남이 모르는 그의 행실을 고르게 고찰하면 보통 사람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책이란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或曰先生之言雖如此, 抑有所不然者. 夫以窮鄉賤子, 目不識一字書, 而有至行於父子兄弟之間者. 人或讀萬卷書, 號爲有識, 而夷考其內行, 有不能及於常人者. 書之不必有益於人如此夫.)

대답1 : 그런 사람은 본래 하늘이 부여한 성품을 얻어서 동물이 한 부분의 밝은 곳을 얻은 것과 비슷하다. 이는 달리 주자의 이른바 ‘죽기로 효도하고 형을 공경하는 사람’이니 단지 하나의 실마리에 국한되어 미루어 나갈 수 없어 죽을 때까지 단지 이럴 뿐이다. 또 이름만 독서한 사람이지 참된 행실이 없는 사람도 학문이라는 이름만 빌린 것에 지나지 않아,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였을 뿐이다. 어찌 말할 것이 있겠는가?(曰彼則固得於天賦之性. 而與禽獸一點明處相似. 特朱子所謂死孝悌者, 但局於是一端, 而不能推將去, 終身只如此. 至於名爲讀書而無實行者, 則不過假學之名, 以自欺而欺人耳. 何足道哉.)

질문2 : 또 의심할 만한 게 있습니다. 세상의 무인(武人)과 속리(俗吏)는 책을 모른다는 사람들이지만, 고을의 일을 하고 있어서 그 직분을 행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유학자 가운데는 정사를 돌보는데 실정에 어둡고 전혀 다스리는 이치를 모르기도 합니다. 이같이 학문이 정사를 돕는데 무익하지 않습니까? (曰抑又有可疑者存焉. 世之武人俗吏號爲不知書者, 而其爲州郡, 能擧其職者多. 儒者則迂於爲政, 全不識治理. 若是乎學之無益於爲政也.)

대답2 : 무인과 속리가 비록 직무에 능숙할 수는 있어도 그 가운데에는 반드시 무식을 감출 수 없는 것이 있다. 유학자 가운데 고을을 잘 다스릴 수 없고 또 달리 독서의 결과가 좋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어찌 학문의 잘못이겠는가? 주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스림을 위해서는 학문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셨으니, 천하와 국가를 위해서 학문을 버리고서

성취할 수 있는 이치는 절대 없다. 학문을 익히지 않을 수 없으니, 그것은 더욱 위정자의 급한 일입니다. (曰武人俗吏雖或能於職事, 其中必有無識之不可掩者. 儒者之不能爲邑, 特不善讀書之致, 豈學之罪哉. 朱子曰爲治當以學爲本, 爲天下國家, 決無舍學有成之理. 學之不可不講, 尤爲政者之所急也.)

질문3 : 선생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람은 과연 배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의 뜻은 비록 이와 같지만, 선생의 이 가르침을 집안에서 시행할 수 없어서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학문함을 듣지 못하면, 저는 한갓 말만 하고 그 실질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남이 누가 그렇다고 믿겠습니까? (曰以先生之言觀之則人果不可以不學矣. 然而先生之意雖如此, 先生之敎不能行於家, 子孫未聞有一人爲學者, 吾恐徒言而無其實. 人孰信其然也.)

대답3 : 부모와 자식은 본디 하나의 기로 형체가 나뉜 것이다. 아침저녁으로 말하면 따르는 자식도 따르지 않는 자식도 있는데, 그것은 기의 차이 때문이다.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천 리 바깥에 있고 내 말을 한 번 듣고 호응이 매우 빠른 사람은 이치가 같기 때문이다. 나의 이런 설명도 어찌 감히 한세상 사람들을 몰아 모두 학문에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는가? 남과 더불어 선을 함께 하는 뜻을 돌아봄으로써 스스로 그만둘 수 없다. 오직 보는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어찌할 뿐이다. (曰父子固一氣而分形. 朝夕語之而有從有不從者, 氣之異也. 今有所不識何狀之人. 居於千里之外, 一聞吾言而應之如桴鼓之速者, 理之同也. 吾之爲此說者, 亦豈敢必其驅一世而盡歸於學也. 顧以與人同善之志, 自不能已. 惟見者信不信如何爾.)

질문1과 그 대답은 배움이 없어도 일상의 도리를 잘 실천하는 사례, 책을 읽어도 행실이 좋지 못한 사례로 이재의 설명에 이의를 제기한 사례이다. 그 답변은 성리학에서 성품의 한 부분만 잘 발휘하는 일로 설명했다. 동물도 가령 벌이나 개미는 배우지 않아도 그 임금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생각과 통한다. 그다음 대답은 학문을 빙자한 위선자의 경우이다.

질문2와 그 대답은 못 배운 사람이라도 일 처리를 잘하며 배운 사람이라도 일 처리를 못할 수 있다는 질문으로, 그것은 학문의 잘못이 아니라 해당하는 사람의 잘못으로 보았다.

질문3과 그 대답은 인물성동이논쟁에서 매우 중요하다. 배움에도 기질의 다름과 이치의 같음을 적용하였다. 기질의 다름에 강조하면 호학이 되고, 이치의 같음을 강조하면 낙학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둘 다 제시하고 있는데, 이재가 어느 쪽을 지지하거나 강조하고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리학 또는 율곡학의 일반론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조한 곳처럼 다름과 같음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었다.